

## 퇴직 10년 교육 봉사로 얻은 삶의 깨달음

전근배 ●●●

**2010년 42년 교직생활을 마치고 퇴임 10년 삶의 설계를 하였다.**

그 당시 초등생 성폭력과 학교폭력이 큰 문제였다. 또, 독도 영유권 문제도 심각한 상태였다. 이 중대한 사건 예방교육을 현직에서 못 다하였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 바른 사회를 위해 모두 쏟아 놓고 싶었다. 1968년 첫 발령 장평초부터 2010년도 까지 거처온 8개 학교와 교육청 2개 모두 10개를 찾아가 독도, 학교폭력 예방, 재능기부를 시작하였다.

42년 교육 경험으로 큰 탈 없이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학폭 예방교육을 하였다. 2004년 교육청 근무 시 독도 자료를 개발하여 도내 교장 전체교육을 하기도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여 우리 학생들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일본 학생과 토론한다면 일본학생에 비해 기본 실력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독도교육을 또 시작하였다.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도내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PPT 자료를 만들어 재능기부 활동도 하였다. 도교육청 직원 월례회와 지역교육청 교장단회의시 강의도 하였다.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다. 거처 간 10여개의 학교에 강의 부탁하는 일과 먼 길을 오가는 시간과 강의시간으로 하루를 보내는 일은 사회 공헌 삶의 철학 없이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았다. 때로는 힘들게 내가 왜 하지, 남들처럼 골프 해외여행과 국내 여행이나 하지, 수당 한 푼 없이 찾아다니는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묻기도 하였다. 그러나 난, 현직에서도 교직 인생 30년 설계를 하고 살아왔고 가훈인 '공부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라고 하신 부친의 말씀과 재건 학교 다닐 때, 교훈인 '하면 된다.'에 '안 되면 다시하자'를 덧붙여 68년도 첫 발령 학급 교훈으로 삼았고, 교장일 때는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성실을 교훈으로 하고 나도 그렇게 교직 생활을 하여왔다.

내가 정한 교훈대로 이일을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다. 도내 모든 선생님들이 필요성을 느껴 바른 교육을 하기를 기대하며 수년동안 만든 강의 자료도 아낌없이 주고 다녔다. 각 학교에서 강의 요청도 많았다. 이렇게 재능기부를 2년간 60여개 학교 6천여 명을 넘게 교육을 하였다. 퇴직 후 독도 사랑, 학교 폭력 예방교육 봉사활동 대가로 경희대 객원교수가 되어 3년간 활동하게 되어 골프 해외여행보다 더 보람차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었다.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은 반드시 정신적 물질적으로 대가가 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 **색소폰 사회공헌 봉사로 색소폰 교장이란 이름표를 달게 되었다.**

2009년 퇴직 1년 전에 색소폰을 배워 점심시간엔 교장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럼과 기타 반주에 맞추어 동요를 불렀다. 이어서 등굣길 공연장을 만들어 매일 아침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악기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며 입실한다. 학구 내에 화제 거리가 되었다. 아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 주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희망과 기쁨을 나누는 보람찬 시간이었다.

퇴직 후에는 색소폰 재능기부 10년 설계로 밝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 실버타운 노인정, 성당, 독거 노인정,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흘러간 노래로 옛 추억을 더듬으며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었다. 휠체어를 탄 분, 지팡이를 잡고 다니는 분, 영양사가 손잡고 오는 분, 방에서 누워서 듣는 노인들, 젊은 시절에 부른 가요 가사를 적어 오는 분,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퇴직 후 3개 시, 군 경로당 노인대학 10여개 곳에서 연주도 강의도 하여 왔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나를 색소폰 교장이라 불러주신다. 악기 도구 7개를 지하에서 7층까지 들고 나르는 일이 힘들기도 하다. 어느 땐, 벽에 악기가 부딪쳐 몇 십 만원 주고 수리도 하고 개인적인 일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언제 또 오세요? 커피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말 한마디와 손을 잡아주기도 하신다. 내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분도 많았다. 그 후 선배님의 출판기념회, 박사학위 축하파티, 박정희 기념관 행사시 시작 전에 연주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봉사활동이 알려지자 수원 시 낭송팀에서 장수 논개 퍼포먼스 시 낭송대회에 함께 참여 해달라

는 제안을 받고, 우리 팀이 퇴장시 나는 조용한 이별을 연주하여 수원팀이 대상을 받는 영광도 얻었다. 이것 역시 색소폰 봉사활동의 대가라고 보고 역시 사회 공헌 봉사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조직하여 태극기 달기, 건전지 수거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였다.**

2013년도 조원2동 새마을지도자협회를 조직해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1969년 교사 시절에는 와이셔츠 상자로 아이들과 함께 만든 국기함도 집집마다 나누어주었고, 교장, 교육장 시절에도 국경일 태극기 달기로 애국심 함양에 노력해왔다.

2016년부터 3년간 1번국도 왕복 10km 넘는 국도에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승용차 트렁크에 국기를 싣고 한사람은 사다리를 들고 두 사람은 사다리를 잡고 한사람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다. 길가는 사람들이 수고 한다고 손을 흔드는가 하면 차량 비키라고 클락션만 울린다. 4사람씩 두 팀이 되어 왕복 4시간 활동하고 소머리 국밥하나 먹고 마친다.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 태극기를 달 땀 힘들지만 펼쳐이는 태극기를 보면 기쁨이 넘친다. 3년째 76세 노인이 쓰러진 후 이 사업을 끝을 냈다.

그 후엔 2017년부터 매월 22일 건전지 수거 활동으로 수원 1등을 하여 상금 1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퇴직 교장 교육장 출신이 태극기 달고, 코로나 방역 소독하고, 건전지 수거하는 사회 공헌 활동은 후회 없는 삶, 보람차고 가치로운 삶이라고 자랑하고 싶다. 또한 존경받는 국민 스승이 되고 싶은 마음도 가슴 가득하다. 늙으면 추억을 먹고 산다는데 우리들에게는 아름다운 사회공헌 먹거리가 채워지고 있다.

**내 나이 75세, 이후 80세까지 인생2막을 전국민 우측통행 준법정신교육으로 사회공헌 하고 싶다.**

1905년 고종이 만든 우측통행을 1921년 국민정신 말살로 조선총독부령으로 차나 사람 모두 좌측 통행으로 전환시켰다. 1946년 유엔군령으로 차만 우측통행으로 전환시켰다. 일제 때 조선 총독부가

만든 좌측통행을 우리는 모르고 89년간 지켜 왔다. 2010년도 한국 도로교통법 8조3항으로 사람도 우측통행으로 법을 제정하고 건널목 화살표, 발자국도 그리고 좌,우 통행선을 그려 놓았으나 교육과 현장지도 부족으로 이를 알고 지키는 자가 거의 없다.

유, 초등에서 연중 1~2회 정도 가르칠 뿐이다. 무질서한 사거리 건널목에서 바른 우측통행 교육을 통해 상대 존중 배려 정신과 전 국민이 꼭 지키는 준법정신 교육을 퇴직 교원단체인 삼락회를 통해 전국에 확산 될 때까지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 갈 것을 나의 제2의 마지막 노후 인생 설계로 하고 실천하고 있다.

나의 소박한 꿈이지만 사거리 건널목에서 전 국민의 질서 있는 우측통행 준법정신 모습은 새마을 운동에 이어 제2의 해외 수출감으로 해외 관광객의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다.

나의 퇴직 후 10년 동안 사회 공헌 활동이 가치로운 삶이 되었다고, 퇴직 후배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어, 소박한 나의 교직 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사례를 적어보았다.

앞으로, 전 국민 우측통행 준법정신교육에 몰입하는 제3의 인생 설계임도 들려주고 싶어 이 글을 쓰고 있다. 또한 80세가 넘으면 천당 티켓도 따고 싶다. 이 몸 죽어 저 세상 천당 입국 재판을 받는다 해도 사회 공헌 봉사점수는 확보 되었으리라 믿고 싶다.

사회공헌 봉사활동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 대가가 반드시 온다는 삶의 깨달음을 얻었다.



수상자 전근배



봉사활동 사진

# 내 인생을 바꾼 포크댄스

이영관 ●●●

‘도전은 즐겁다’ ‘실행이 답이다’ 내 인생관이다.

나는 포크댄스 강사다. 나에게 배우는 수강생이 던지는 질문 하나! “이 포크댄스 어디서 배웠느냐?”이다. 남성이, 그것도 중학교 교장 출신 60대 시니어 강사가 신기하게 보였나 보다.

## 포크댄스, 두려움과 어색함에서 속직날 장관(壯觀) 기록

포크댄스가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처음엔 포크댄스와 영 인연이 없었다.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앞두고 포크댄스를 만났다. 여학생과 손잡는 것이 왜 그렇게 싫었고 창피했는지. 나무막대기를 사이에 두고 막대를 잡았다. 두 번째 만남은 인천교육대학. 무용과 교수님께 1학기 동안 배웠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배웠다. 대학 축제 때 쌍쌍 파티가 있었다. 강당에서 포크댄스를 배우고 즐기는데 방송실 친구의 권유로 마지못해 참여했다. 춤은 썩매이고 이성과 손잡는 것이 어색해 가슴은 푹푹뚫 뒤통수 얼굴은 벌겍게 되고 몸이 굳어 영망이 되었다.

세 번째 만남은 초교 교사 3년차가 되어 여름방학 속직날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교회수련회 모습, 대학 때 배운 바로 그 포크댄스의 장관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아, 그때의 반가움과 친숙함이란! 포크댄스 동작을 공책에 그려가며 기록했다. 그날 초저녁 포크댄스와의 재회가 나의 삶을 바꿀 줄 누가 알았으랴! 낱아빠진 그 공책 소중히 간직하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

수원 매원초교는 포크댄스 실행교가 되었다. 교직원 포크댄스 연수회에서 4년간 20여 종을 지도했고 전교생 중간놀이 포크댄스는 사열대 위에서 시범을 보이며 교사로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스카우트 대장이 되었고 지도자 훈련강사로도 뛰었다. 학부모 교실에서 어머니들과 춤을 추었다.

## 자신감은 평생학습이 밑바탕, 은퇴 후 학습관에서 포크댄스 강사

포크댄스 지도의 용기와 자신감은 바로 평생학습! 종로서적, 교보문고에서 포크댄스 전문서적을 구입하여 대학입시 공부하듯 독파했고 실기 능력은 서울 YMCA 특별강습에서 연마했다. 나는 과거의 수줍음 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포크댄스 강사이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멋진 교사로 변모해 있었다.

중학교 국어교사가 된 후 포크댄스는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였다. 은퇴 후 포크댄스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4년 전, 바로 뒤라도학교 인생수업이 계기가 되었다. 수강 동료들에게 한 용감한 제안 하나. “수업 후 그냥 귀가하지 말고 포크댄스 배우며 동기끼리 가까워지자” 수강생 대부분이 찬동했다. 수업 후 이루어진 포크댄스는 친교와 사회성 증진에 최고였다. 수강생 모두 기다려지는 포크댄스 시간이 되었다.

포크댄스 반응이 좋아 동아리 모임 활동을 하면서 ‘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포즐사)’가 탄생했다. 수원화성문화제에 출연해 시가행진을 하고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평범한 시민이 시내 중심가 대로를 행진하고 수많은 관중 앞에서 춤을 추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 복지관, 경로당 등이 활동무대, 수원화성문화제에서 3회 연속 수상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는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포크댄스 한마당’을 펼쳤다. 아파트에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경로당을 찾아가 홍보 활동을 벌였고 회비로 음료와 과자, 떡 등을 준비했다. 이 모든 것이 즐거움과 행복의 연속이었다. 어르신들 행복 미소는 우리의 보람이었다.

다음은 경기상상캠퍼스 포크댄스 동아리. 이 캠퍼스는 서수원 신중년 아지트가 되어 시니어에게 삶의 활력을 주었다. 덩달아 활동무대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방송대 경기지역대학, 무봉종합사회복지관, 서호여경로당, 광고2차 e편한세상 숲속학교, 벌터문화마을, 일월공원 등이 활동 무대다. 경로당 문화교실 강사가 되어 누님과 형님들께 포크댄스의 재미를 안겨드렸다.

수원화성문화제 조선백성환희마당 연속 3회 출연해 수상하였고 수원시평생학습축제에서 우수상을 받아 실력을 인정받았다. 모교 세류초교 총동문회 행사에서 포크댄스는 동문을 한마음으로 만들었다. 내 구호는 '포크댄스로 건강하고 신바람나는 신중년 문화 만들기'. 포크댄스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목표는 신중년의 건강과 사회성 증진, 자존감과 성취감 증대, 사회봉사를 통한 자아실현을 꾀하는 것이었다. 실제 1석5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신한다.

올해는 서호댄싱스타 동아리에서 웰빙체조와 라인댄스를 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중 시니어 종목은 관심 1순위이다. 동영상을 여러 차례 보면서 동작을 분석해 기록에 남기고 TV 화면을 보면서 동작을 수십 차례 따라 한다. 다음엔 음악만 듣고 혼자서도 동작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맹훈련에 돌입한다.

### 인생관 '도전은 즐겁고 실행이 답이다' 실천

강사로서 인상적인 만남은 광고2차 e편한세상 숲속교실. 학습관 월담에서 포크댄스 체험한 분이 재능기부를 요청, 매주 1회 정기모임을 했다. 이분들은 아파트 여름캠프에 포크댄스를 넣어 어린이들을 직접 가르쳤다. 어르신들은 배우는 기쁨과 가르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 이 숲속교실은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되었다.

또 한 가지는 경기도초등무용교육연구회 연수에 강사로 초빙된 것. 전문직 교사들의 요청은 처음이었다. 이 포크댄스 영상은 유튜브에도 나온다. '춤출래' 회원 학교현장에서 포크댄스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습은 계승되고 전파한다. 나의 활동사례는 KBS, YTN, OBS, TBS 등의 방송을 탔다. 방송에 출연해 평생학습, 평생교육을 홍보했다.

평생학습에 대한 나의 소신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것, 삶과 학습은 동반자라는 것, 우리의 삶 자체가 배움이라는 것. 도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 준비는 곧 학습이다. 배우려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이다. 도전은 즐겁고 실행이 답이다. 나는 행복한 포크댄스 강사다.



수상자 이영관



댄스 활동 사진

## 꿈을 꾸는 IQ 89

임선규 ●●●

**성공한 사람으로서 사례를 말해야 한다면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더구나 누군가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자 하는 경험은 더욱 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현재의 나는 예전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분명하며 알아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기에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어릴적 나의 꿈은 막연하게 기술자였다. 운전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던 시절이었고 도시로 부모님과 올라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으며, 몸으로 배우며 된다는 요행으로 학업은 뒷전에, 누가 봐도 노는 아이였고 작은 체구에 까만 피부 열등감 찌는 콤플렉스 대마왕에 그런 나를 감추기 위한 과격한 활동성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IQ 89! 이걸 우연히 교무실 갔다가 보게 된 담임선생님 수첩에 적힌 숫자로 불혹의 나이를 넘길 때까지 믿고 살았던 숫자이다.

한계를 경험하다.

전기공사업체에서 일하며 깨진 유리창 대신 비닐로 비를 막고 있는 카고크레인에서 쉬며 옆 의자에 덩그러니 놓인 잡지책을 집었다, 놓았다가 몇 차례 반복해가며, 그칠 줄 모르는 비에 작은 기사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며 뒤척뒤척 시간 죽이기를 하던 중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았다.

‘나가서 장주10분 할까? 책상에 앉아 책을 볼래?’

[장주 : 전선로 가선을 위해 발판볼트 및 전선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물로 금구와 애지등을 전주에 설치하는 작업.]

지금의 비가 그치고 나면 뜨거운 태양 아래 땅 밟는 시간보다 더 몇 곱절의 시간을 전주에 매달려 하는 작업은 상상보다 위험하고 힘이 든다. 때로는 무모함에 체력의 한계점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 작업도 종종 있기에 머리보다 몸으로 때우는게 당연하다고 살았던 내가 선뜻 답하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뒷통수를 햄머로 가격 당한 듯한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 태도가 삶을 변화시킨다.

한 아이의 아빠이고 반지하 방에서 쪽잠 자는 아내를 둔 가정에 교과 수준이 초등학생도 안되는 공고 졸업생이 감히 상상도 못하던 기사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해 일과 공부를 함께 시작했다.

6개월 내내 외계언어를 듣고 공부 아닌 공부를 하여 치른 첫 필기시험에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시험장을 나와 떨어졌겠구나 하는 생각에 간신히 누르고간 눈물은 집사람을 보는 순간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통곡으로 변하여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고, 집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쉽지 않을거라 생각했던 결과라며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면 회사 그만두고 도전해보라 했고, 생활비 80만원 은 꼭 필요하다는 말에 어떻게든 벌어준다는 약속과 함께 철없는 난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였다. 아마도 난, 그때 집사람의 격려가 나에 대한 신뢰라 생각했던거 같다. 처음 누군가 나를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하게 하였다.

성취의 기쁨을 누리다.

합격자 ARS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집사람은 스스로에게 질투날 정도로 내가 좋아했다고 회상하였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는 도전과 자신감으로 변화된 나는 업무에 복귀하여 일과 공부를 반복하며 기사 자격증을 4종목을 더 취득하고 지인의 추천으로 야간대학도 진학하여 늦깎이 학생되어 그렇게 싫어하던 숙제를 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는 모습은 예전의 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교과 공부에서는 오히려 전공수업보다 더 값진 수업이 인문학 수업이었다. 교육학, 한국사, 교양철학 등등... 이십대에 배울 교양을 서른살이 되어 배우며 진한 삶과 엮인 나의 시각을 무한 영역으로 두어야 된다는 겸손과 유연함을 배우기에 충분하였다. 그때 수업중에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던 거 같다.

## **IQ 89가 이루어 가는 꿈.**

**졸업 후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일하며 행운이 더하여 꿈이던 전기공사업체 대표가 되었다.**

그러나 멍텅구리납시바늘로 봉어를 낚는 것이 아니라 물린 고기를 건져내 올리듯 초보 경영자인 나는 엔지니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몸만 수고스러운 책임감 있는 전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가, 뭔가 있지 않을까? 경영학을 맛보기라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간이 좀 더 여유롭다 생각되는 방통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하여 졸업장을 위한 교과 학점관리보다는 대면수업을 선호하여 수강신청을 하였고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는 교수들의 강의만으로도 귀가 열리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가치 판단에 의한 의사 결정’ ‘경영은 일이 잘되게 하는 것’이라는 극히 기본적인 개념만으로도 선택의 보답은 넘쳤다.

아주대 경영대 최고경영자과정은 대표들과의 교류로 다른 경영인들의 경험을 옆자리에서 허물없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배움을 통해 회사에 실제 적용해가며, 기업 가치를 키우기 위한 다각화로 분화를 시도하여 성과도 있었다. 지금도 돈도 잘 버는 기업, 또 어떻게 사회에 이로운 기업을 꿈꾸며 어디까지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보내고 있다.

뒤돌아 보다.

내 삶에 배움은 끝이 없을 거라고 단언한다.

납시꾼이 자리를 잡고 대를 편성할 때 보이지 않는 물속 상황을 뒤 돌아보면 예측이 가능하다. 수면의 연장선이 물속의 상황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묘자리 앞이 명당인 이유는 따뜻한 양지에 지대가 완만하고 지질도 나쁘지 않아 수초 형성이 잘되고 봉어가 서식하기 좋은 곳 중 하나이며 절계지

는 마사토 형성에 바닥이 깨끗하여 잉어가 회유하기 좋은 지형이 물속에서도 펼쳐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에 놓인 장애물도 중요하지만, 뒤도 돌아보고 낚시대를 펴야 대상 어종을 잡을 확률이 커진다.

사업도 배움도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수원시글로벌평생관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공모를 준비하는 이번 기회만으로도 다시 뒤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초심으로 돌아가 배움에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수상자 임선규



장주 작업 사진

# 3부

---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응모글 모음





## “멋진 조경 전문가”의 길로 평생학습

이 상 성 ●●●

**내 나이 43세, 그러니까 2013년 과로와 피로가 겹쳐 결국 쓰러졌다.**

두달에 가까운 병원 신세를 지고 나서야 “이게 사는 건가?”하는 자괴감과 함께 건강의 중요성, 삶을 돌아 보는 계기가 되었다.

퇴원후 주말이면 운동겸, 스트레스 해소겸 들과 산으로 움직였다. 물론 “위커홀릭(workaholic)”라고 할 정도로 업무에 올인하던 모습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 하는가?, 나의 삶의 후반기에는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둘씩 샘솟기 시작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선배들이 간간이 들려주던 “은퇴후에 할 것이 없다. 그동안 내가 무얼했지?”라는 말씀들이 생각 났고, 산과 들로 쏘다니면서 그 부분에 대해 더욱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토록 싫었던 “농사”와 “자연속의 삶” 속에서 나를 발견 할 수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던 아버지를 보면서, 농사일을 거들던 어릴적의 나를 보면서, “절대로 농사 일과 관련된 직업은 선택하지 않겠다. 농사는 짓지 않겠다. 내가 농사를 지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런데, 시골 밭에서 잡초를 매면서 “농부”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좋아 하는 것만을 해서는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내가 10년후에

은퇴한다면 무엇을 할것인가를 고민한 결과 “매년 하나씩 이뤄야 하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5년 내 나이 45세에 내린 결론이었다.

일단 “10년후의 내 모습”을 그려보았다. “멋진 조경 전문가”라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찾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조경가든대학”에 등록해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무언가 부족했다.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의지를 끌어 올리지를 못했다.

### **자격증에 도전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1년에 최소 1개의 자격증을 따야 하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다. 2015년 조경기능사를 시작으로 조경관련 자격을 위한 공부를 하였다. 전문학원을 다니고,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교육에 참여하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교육 등을 통해 꾸준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의 결과가 “조경기능사(2015), 굴삭기운전기능사(2017), 지게차운전기능사(2017), 건설기계종사면허(2017), 농기계운전기능사(2018), 도시농업관리사(2018), 시민정원사(2019)” 등을 취득할 수 있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농업 텃밭은 물론, 야생화학교(의왕) 수업에도 매년 참여하여 초급반을 거쳐 중급반, 상급반으로 지속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영총”이며,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별명이다. “영원한 총무”라는 뜻으로 야생화교실이 사설로 이뤄진 탓에 해당 교수가 수업을 강의하지만, 총무가 수업을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수업을 보조할 총무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태껏 총무를 하다보니 붙여진 “별명”이다.

2019년 경기도에서 시행한 조경전문가 과정인 “시민정원사” 자격을 획득하고, 2020년부터 매년 40~50시간 이상을 조경봉사활동에 할애하고 있다. 매주 주말이면 초등학교 등을 돌면서 나무를 전지·전정하고, 풀을 깎으며 실무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조경을 하기 위한 다양한 스킬을 실무에서 익혀가고 있다. 봉사의 보람과 함께 전문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방송통신대 농학과에 입학하다.

2020년 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3학년 과정에 편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중간과제물, 기말고사 등의 스트레스는 있지만 지속적인 학습으로 역량을 키워가고 있으며, 교육의 즐거움을 평소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직장의 일도 당연히 중요하고, 직장에서의 전문성과 역할의 중요성도 중요하기에 당연히 업무관련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직장 일에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주말과 퇴근후에는 여유를 찾고 있다.

동료들이나 잘 아는 선배들은 “당신은 지금 회사 짤려도 먹고는 살겠구나”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지금 회사를 짤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즐길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에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즐거움을 느끼며,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일이라면 “평생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싶다.

# “내 인생의 수레바퀴”

정명희 ●●●

## 61년을 학교에 다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나이가 집에서 부르는 나이로 여섯 살이었으니 만 4년 6개월 된 아주 어린 아이 때였다.

교사이신 부모님께서 시골 외갓집에 다녀온 나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촌스런 사투리를 쓴다고 그 이듬해 학교에 청강생으로 다짜고짜 집어넣은 것이 평생학습의 입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61년을 학교에 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고 자부한다. 고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나의 평생학습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너무 학교를 일찍 들어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교우관계며 학습적응에도 힘들었지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따라한 학습이 입시시대였던지라 중학교 시험에도 합격하고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험에 합격하여 무난하게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 이후 학교에서는 해마다 연수를 수십에서 수 백 시간씩 받았으니 그 시간이 얼마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생활 포함 학교생활이 60여년이라니 스스로 생각해도 평생학습은 나만치 한 사람은 드물 것 같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야간으로 대학과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무언가 아쉬운 것이 남았던 것은 아무래도 직업이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스스로 좋아서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고뇌였지 않았던가 싶다. 시간이 갈수록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삶에 대한 내면의 질문도 깊숙이 하면서 터득한 것이 나에게겐 천직으로 문학에 입문하는 소명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 꿈이 현실이 된 것은 나이가 50이 될 무렵 문단에 입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준비와 연습을 했을 것인가. 하지만 막상 문단에 나오니 나의 작품은 각이 지고 답답하고 감성이 없는 글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운 남편이 먼저 ‘정이라고는 하나 없는 글’이라고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창피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나의 삶 육십 평생을 학교에 바치다시피 하며 각종 자격증을 수 십 여장을 받아내고 평생학습관련 서적이란 서적은 다 읽었으며 직접 현장에서 강의까지 했던 내가 그것도 등단까지 한 나의 글이 지리멸렬하게 외면을 당하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

### 밤새워 글을 쓰다 흰히 먼동이 트고

그리하여 어렸을 때 이미 읽어버린 문학책을 다시 사서 읽고 문학강좌를 정신없이 들어가며 글쓰는 작업에 몰두했다. 어느 날은 학교 가는 것도 잊고 밤새워 글을 쓰다 보니 흰히 먼동이 트고 시간은 7시가 넘는 것을 알고 부랴부랴 학교에 출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평생학습이란 생각은 못했고 자연스러운 직장생활의 일부였으며 오로지 그렇게 사는 삶이 최고라는 생각에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학습을 따라 했던 것 같다.

지금도 나는 주위사람들에게 강사자격증이 몇 개인지 연수를 몇 회 이상 받았는지 이야기를 잘 안한다. 이유는 햇수로는 남보다는 많은 강좌를 듣고 평생학습을 했는데도 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이것 저것 도전하기만 했지 수확이 없고 건져낸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문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린시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교사로 계신 부모님 덕분에 학교에 갔는데 특별히 나에게 문학적 소양을 쌓게 해 주신 분은 천등 이진호 박사님이시다. 그 분은 3학년 때 문예반을 맡아 우리들에게 글쓰기를 지도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갈 정도로 문단사에 빛나는 작가임은 뒤늦게 알았다. 어렵풋하게 생각된 것은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당시 『좋아졌네 좋아졌어』란 노래 가사를 지으셔서 전 국민이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어디 어느 곳에서도 이 노래가 없으면 새마을 운동이 안 될 정도로 전국에 확산된 노래작사를 하신 분이시다. 물론 군가도 작사하시고 지금까지 군대에서는

그분께서 작사하신 군가를 부르고 있다. 그런 분인데도 어린 마음에 어렵고 무섭기만 해서 전전공공하다가 시간만 보냈던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은 나의 재능을 읽으셨고 격려 차원으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상을 주셨으니 어찌 작가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으랴.

흔히들 ‘문학’을 다루는 사람들을 ‘문인’이라고 한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있는 그대로의 현실보다는 대상이나 소재를 주로 상상의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다른 예술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문학은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되는 예술이다. 문학의 소재는 언어이며 그 언어를 조합해 조직화하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라고 보면 무난하다.

문학에서 말하는 ‘문(文)’은 ‘말(言)’이 아닌 글을 뜻하며 ‘문인(文人)’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예(文藝)’에 종사하는 사람. 즉 시인이나 소설가, 평론가 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 진정한 문인이 되기 위해 평생학습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움과 가르침을 동반했으며 시간이 가면 문학서적을 읽고 문학강좌를 하며 일생을 바치고 있다.

### **사랑의 반딧불로 등단의 기쁨을 누리다.**

드디어 2004년 꿈에도 그리던 아동문예지에 사랑의 반딧불로 등단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그전에는 그저 신춘문예에만 골몰하고 어떻게 작품을 제출하는지 어느 누구에게 습작을 해서 보여야 하는지 지도를 받는지 몰라서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세상이 달라져서 신춘문예만이 아니고 일반 잡지사에서도 등단작가를 뽑는 것을 알고 도전하게 되었다.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2004년 그 해에 시인으로 또 수필가로 한꺼번에 등단의 기쁨을 맞이했다.

그해부터 그리도 갈구하던 작가의 길에 들어섰기에 바로 시집 『사랑 한 잎 그리움 한 잎』을 출간했으며 이어서 『사랑의 반딧불』이란 동시집을 내게 되었다. 그 책을 가지고 초, 중학교 학생들 및 성인문학 강좌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수 백여 차례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강생도 늘어나고 몇몇 마니아들도 생겨나 언제나 부르면 달려 올 문학생들도 생겨났으며 작가로 등단을 시킨 사람이 여러 명 된다.

내 인생의 수레바퀴는 문학이란 굴레를 갈 수 밖에 없는 인생길을 잘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성시에서는 서정문학회 회장을 8년이나 맡아서 『서정문학』 창간호를 시작으로 5권의 동인지를 만들어 냈으며 전국적으로 환경문학 수석회장을 맡아 『환경문학』지를, 경기문화포럼 문학회장으로 『경기문학 포럼』지를 만들어냈고, 경기산림보험회지 창간호와 2호까지 편집일을 맡아 하게 되었다.

### 수원 문인협회 회장직을 맡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주위의 권고로 수원문인협회 회장직을 맡아 300여명의 수원문인들의 수장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수원의 팔달구 화서문로 35번지에 위치한 행궁동에 수원문인협회는 자리잡고 있으며 전국에서 세 번씩이나 문학지로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단체다.

중학교 시절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을 읽으며 인간들이 겪는 ‘지적 방황’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죄와 벌’ ‘데미안’ 등 주로 세계문학전집들을 많이 읽으며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기도 했던 나.

고등학교시절엔 김동인의 ‘감자’ 박경리의 ‘토지’등 ‘한국문학전집’을 주로 읽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처절한 삶에 대해 고뇌하기도 했었다.

수원과의 인연은 1991년 수원 구운동에 입성하여 91년 당시 수원에 신설된 정천초등학교(정자동+천천동)와 팔달산 아래에 위치한 매산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던 때부터였다. 수원에 살면서 화성구봉초등학교에서 (2004~2006) 교사, 그리고 제자리에서 교감을 거쳐 2012년 8월 정자초등학교 공모교장으로 부임해 2017년 8월 말에 모든 교직생활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간 수십여 편의 작품들을 집필했으며 대표적 작품들로 동시, '사랑의 반딧불'(아동문예지2004년), '햇살비(동시집)' '나비가 된 겨울(2016년), 동시쓰기의 실제:동심으로의 행복한 글쓰기(2016), 시집 '사랑 한잎, 그리움 한잎(예사랑2007년)' 시집 '사피니아연서'(예사랑2014년), 동화집 '동그라미 요정(아동문예2015년)', '엄마가 사 오신 무지개 꿈 등 다수의 저서와 공저로는 '詩(시) 문학이론의 실제'(지성의 샘2015년), '꽃들도 하늘을 날고 싶다'의 다수의 작품집이 있다.

수상으로는 아동문예문학상(2004), 아동문예본상, 문예사조 신인상(2004)과 지구문학 수필상(2004)을 비롯해 '청소년 홍익장(훈장), 아동문예 본상(2014) 등 수많은 수상을 비롯해, 모범공무원 국무총리표창(2006), 경기문화인 대상(2011년), 자랑스런 경기문학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매월당문학상(김시습2008), 2017년에는 황조근정훈장(대통령) 등 교육자와 작가로서 수십 여개의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 **오늘도 나는 문학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해 달려간다.**

부모님께서 내려 주신 "정화-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가지라"는 좌우명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주위를 아우르는 인생을 살자"라는 인생철학을 가지고 오늘도 수원문인협회와 하루의 삶을 오로지 문학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아울러 평생학습은 내게 있어 내 삶을 이끈 가장 큰 수레바퀴라고 자부하며 오늘도 나는 문학에 대한 평생학습을 위해 달려간다.